

여수의 문화·명소·자연·생활 106수 詩로 읊다

김준옥 교수·김병호 이사장·김희태 위원
'120년 전 여수를 읊다' 번역 출간

초대군수 오홍묵 '여수잡영' 시문 탈고 2주갑 기념

"석간수 흘러내려 절 이름이 되었네/ 사월 빈터 누대에 그 이름도 높고 높네/ 언제나 잠 모습은 천상계 뛰어 넘어/ 범종소리 운에 맞춰 시 한 수 지었네" (오홍묵의 '석천사' (石泉寺))

조선 후기 학자이자 관료로 자는 성규(聖圭)이며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이번에 김준옥 전남대 명예교수, 김병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김희태 전남문화재단위원이 오홍묵의 '여수잡영'을 토대로 '120년 전 여수를 읊다' (심미안)를 새롭게 번역해 출간했다.



나라를 지키는 보루, 복원된 망해루. (심미안 제공)

뿐만 아니라 관청의 중대한 일을 일기체로 엮은 책을 발간하는 등 저술과 기록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 '지도총쇄록', '정선총쇄록', '여수총쇄록' 등이 대표적인 책이다.

이번에 발간된 '120년 전 여수를 읊다'는 작금의 여수 밤바다, 여수엑스포, 오동도, 향일암, 돌산 갯길, 계장백만 등 현재 여수를 대표하는 문화와 관광, 음식 등과도 함께 연계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세 저자는 책을 엮는데 있어 원저자의 시정신과 원작의 의미를 살리는 데 초점을 뒀다. 이들은 "지역과 의역을 떠나 쉽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미적으로 표현하는 방안을 고구했다"고 한다. 또한 당시 민중들의 고단한 삶을 서정적으로 표현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책에는 당시 오홍묵의 심경을 드러내는 서정적인 시도 다수 실려 있다. 관리로서, 자연인으로서의 심사를 담은 시는 오늘에 읽어도 잔잔한 울림을 느낄 수 있다. "달 지자 까마귀 울며 찬 서리 내리는데 / 강가 단풍, 고깃배 불빛에 잠을 들 수 없

구나/ 고소성 밖 한산사에선/ 밤중 범종소리 객선까지 들려오네" ('한산사' (寒山寺))

여수 구불산 기슭에 있는 한산사를 소재로 한 시에는 가을밤 쓸쓸한 심사가 드리워져 있다. 어디선가 범종소리가 들리고 수행하는 스님의 모습이 보일 것도 같다. 한산사 창건 연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한산사중창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구불산은 우리나라 여러 산 가운데 가장 영험한 곳으로 수목이 울창한데, 이러한 명산에 사찰이 없음을 안타까워 한 보조국사가 이에 절을 창건하였다."

저자들은 "내년 2019년이면 전라좌수영 설치 9주갑 540년이 된다. '여수잡영'은 여수군 창설 무렵의 자료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라좌수영의 역사성 및 공간과 함께 한다"며 "이 저술이 현대인들에게 120년 전의 여수는 물론 540년을 거슬러 전라좌수영의 역사적 공간을 사실적으로, 감성적으로 이해하는 교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지난 6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동 '김광석다시그리기길' (김광석길)은 평소보다 많은 인파로 활기가 넘쳤다. 거리 한켠에 자리한 기타치는 김광석 동상 주변에는 수십 여개의 꽃송이와 양초가 놓여 있었다. 350m에 이르는 거리에 등성 등성 설치된 스피커에선 '서른 즈음에' '이등병의 편지' 등의 노래가 흘러 나왔다. 영원한 가객 김광석 (1964-1996)의 23주기(1월6일)를 맞아 열린 이날 추모콘서트에는 '종이 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김광석길은 지난 2011년 대구시가 이곳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김광석을 문화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조성한 곳

사실 '문화로 먹고 사는' 국내외 도시에서는 지역 출신 대중스타나 예술인들을 테마로 하는 특화거리들을 만날 수 있다. 일명 '비틀스 횡단보도'로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런던 북부의 '에비로드'를 비롯해 홍콩 출신 영화배우들의 손도장을 화려하게 수놓은 침사추이 '스타의 거리', LA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선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0m 길이에 조성한 '신해철 거리'와 서울 강남의 '한류스타거리' 등이 유사한 케이스다.

최근 광주시가 총장로 일원을 K-POP 광주 아이돌거리(광주아이돌거리)로 조성하는 민선 7기 주요 문화정

'광주아이돌거리'가 통하려면

이다. 당시 대중가수의 이름을 딴 거리는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초기에는 도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콘크리트 거리였지만 그의 삶과 음악이 덧입혀지면서 생명의 거리로 바뀌었다.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색깔있는 콘텐츠 덕분에 한해 평균 140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자리잡았다.

대구에 김광석길이 있다면 수원에는 나혜석거리가 있다. 하지만 지명도나 위상은 극과 극이다. 수원의 브랜드를 표방한 이곳은 여류화가이자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나혜석(1896-1948)의 삶과 일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0년 그의 동상과 조형물을 설치한 300m의 문화거리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길 가운데에 노점상들이 들어서면서 예술과 낭만 대신 슬립과 음식점이 즐비한 맛집 골목으로 변했다. 당국의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문화와는 거리가 먼 회색거리로 전락한 것이다.

책은 발표했다. 광주아이돌거리의 지역 출신 아이돌가수인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을 비롯해 동방신기 유노윤호, 미스에이 수지, 박병 승리 등의 핸드·풋 프린팅을 전시해 전국의 팬들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광주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소문난 관광지가 부족한 만큼 이들 빅스타를 브랜드화 하는 '셀럽마케팅' (celeb marketing)은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나혜석거리 나관에서 할 수 있을 남아야 할 산도 많다. 무엇보다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드는 콘텐츠는 선풍을 가를 핵심요소다. '광주아이돌거리'가 이름에 걸맞은 지역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머지않아 아이들의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장료를 거닐 관광객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4월~12월 시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이수자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와 전수교육교로부터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량심사를 거쳐 발급받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말한다. 종목별 심사 대상자, 일시, 장소, 평가 범위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www.cha.go.kr)과 국립무형유산원(www.nihc.go.kr)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0-1451/1453)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포럼

30일 옥과 행복지원센터

전남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포럼이 오는 30일 곡성군 옥과면 행복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전남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개최하며 포럼과 아울러 아카이브 전시도 열린다.

나경수 전남대 교수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김희태 전 전남도문화재단위원의 '전남 무형문화유산의 현황과 실태', 흥태한 전북대 무형문화유산정보연구소 연구원의 '전남 무형문화유산에 계승과 확산', 송기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의 '전남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곡성축동농악 중심'이 발표된다. 이어 송준 고려대 교수, 함한희 전북대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나서 전남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도립전라남도옥과미술관에서는 전남 무형문화유산 곡성축동농악 아카이브 자료 100여 점을 다음달 12일까지 전시한다. 곡성축동농악의 소개와 아울러 196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의 명인계보, 악기, 복색, 당산굿·마당놀이·판굿 등 농악연행 사진, 영상 및 음원, 문서 등도 선보인다.

특히 서울농업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1936년 '덕석기' (농기·農旗)를 대여해 최초 공개한다. 문의 061-280-5823, 061-363-727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서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설명회

3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한국관광공사 제9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설명회가 오는 31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전남 관광분야 유망 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가 함께 추진한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 우수관광벤처기업 소개(PT), 공모전 설명(PT)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공모전은 크게 '일반관광벤처'와 '해양관광벤처' 부문으로 나뉜다. 예비관광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관광 상품·서비스 개발비 최대 4000만 원(자부담 750만원)과 함께 기업별 컨설팅·교육, 홍보·마케팅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관광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홍보·마케팅비 1400만 원(자부담 350만원)과 국내외 판로개척·기업 간 협업사업 지원 등을 받는다.

해양관광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해수부로부터 2250만 원(자부담 없음)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해양관광 특화 교육, 판로 개척 지원은 물론, 문제부가 지원하는 관광벤처 아카데미 교육과 기업 간 교류(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예비)관광벤처기업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는 누리집(tourventure.or.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오는 2월27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6395-312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